

아시아나 항공기 50대 돌파

아시아나항공이 출범 9년만에 항공기를 50대를 보유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박성용 그룹 명예회장, 박삼구 사장과 미국 보잉사 관계자, 공항 상주기관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번째 보유 항공기인 B767-300 도입식 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항공기 보유대수로 따져 세계에서 42번째, 아시아 지역에서는 JAL, SIA, ANA, 싱가포르항공 등에 이어 10번째로 50대의 비행기를 보유한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특히 하늘의 공전으로 불리는 국제선 주력 기종인 B747-400을 11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는 이 기종의 보유대수로는 세계 굴지의 항공사 가운데 15위에 랭크돼 있다.

또한 이번 항공기 도입으로 아시아나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의 평균 연령은 더욱 낮아져 3.34년을 유지, 세계 40대 항공사(매출액 기준)중에서 가장 젊은 항공사의 이미지를 지속하게 됐다.

지난 88년 12월 15일 1번기인 B737-400기를 인수한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마침내 B747-400 11대(여객기 전용 2대, 콤비 6대, 화물기 3대) B767-300 16대(B767-300 8대, B767-300ER 7대, 화물기 1대) B737-400 17대 B737-500 6대 등 총 50대를 보유하게 됐다. 아시아나는 지난 88년 12월 23일 첫 취항당시 항공기 1대(B737-400)로 복수민항시대를 연 이래 지금까지 50대를 보유하며 국내 24개 노선, 국제 45개 노선(15개국 36개 도시)을 운항하는 국제 항공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中, 광저우에 신공항 건설

중국정부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광저우지방에 총 24억달러를 투입,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키로 했다. 광저우에 들어설 신 공항은 3천7백미터의 정방형 부지에 건설될 예정인데 연인원 8천만명, 2백5십만톤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에 따르면, 활주로 2개는 오는 2005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다.

기존의 광저우 베이언 공항은 1996년 현재 중국 2위의 공항으로 연인원 1천2백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신 공항건설을 위해 자금 및 경영을 지원해줄 외국기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 항공시간 제휴활기 안셋, 뉴질랜드항공, SIA 등 3개 항공사

호주의 안셋(Ansett)과 뉴질랜드항공(Air New Zealand) 그리고 싱가포르항공(SIA)사가 동남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의 항공운항에 대한 상호 협정을 맺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 양해각서에 따르면 3개 항공사는 코드쉐어링, 네트워크, 예약 및 발권, 운항계획 공동수립, 항공기 공동구매 등을 수행키로 되어있다. 그동안 SIA 항공사는 호주의 콰타스(Qantas) 항

아시아나가 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공을 비롯하여 안셋항공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패한 바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다시 시도하게 됐다. 현재 안셋항공은 뉴질랜드 항공과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의 50:50 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안셋항공은 현 보유기종의 종류를 줄이고 이중통로형기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잉과 에어버스사의 767-300ER 과 A330-200 기종을 고려하고 있으나 SIA의 설득으로 A340기종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SIA는 A340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77기종도 보잉에 이미 주문하였다.

한편, 동 3개 항공사가 협력할 경우 호주 콰타스 항공사와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콰타스 항공은 SIA사의 논스톱 노선, 기내 서비스 개선 및 노선증설등 강력한 서비스 제공등에 맞서기위해 최근 4억 3천만달러 상당의 신기종을 도입 하는등 다방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주공항에 중형기 취항

지난 19일부터 진주(사천)공항에 2백58~2백90석 규모의 중형기가 취항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진주간 탑

승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 한해 하루 왕복 2회씩 중형기 취항을 허용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진주노선에 중형기인 A300과 B767기종을 투입 토, 일요일에 각1회씩 왕복운항하게 된다.

하루 8회 여객기 운항중인 서울-진주노선은 그동안 1백60석 규모의 B737기종등 7기종등 소형기만 운항, 올해 들어서만 지난 6월까지 탑승률이 92%에 이르는등 탑승난을 겪어 왔다.

일본 JAL·미국 AA 항공협력

일본항공(JAL)은 미·일 쌍무항공회담이 끝난 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AA)과 광범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JAL 관계자들이 밝혔다.

JAL의 한 대변인은 "우리는 AA와 보다 긴밀한 상업적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공업신문도 이날 두 항공사가 광범위한 협력에 관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양국이 항공회담에서 타결을 보는 직후 협력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JAL과 AA가 이같은 협력계획에 따라 코드쉐어링을 확대하고 상호 항공시설을

활용하며 비행 예정시간보다 지체되는 경우 상호 좌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이같은 협력 움직임은 독일의 루프트한자,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태국항공, 에어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SAS)이 지난 5월 발표한 '스타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美 벨루젯항공, 합병추진중 운항평가는 여전히 부정적

지난해 항공기 추락으로 정비 불량 판정을 받은바 있는 미국의 벨루젯(Valujet) 항공사가 에어웨이즈사(Airways Corp.)와의 합병을 추진중이다. 새롭게 탄생될 회사(Holding Company)는 에어웨이즈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에어트랜 에어웨이즈사(AirTran Airways Corp.)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양사는 독립적으로 경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병은 금년 9월경에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한편, 미국 FAA의 휴가철 안전운항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는 '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벨루젯항공사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량판정을 받은바 있다.